

동남아 '교학' 구미 '명상' 위주

'세계불교 수행체계' 가산불교학 학술회의

남방불교권이 삼장 중심의 교학전통을 이어오는 동안 한국은 불교를 표방하면서도 선수행을 강조했다. 일본은 교학과 수행을 상호 보완해 발전시켰고 유럽과 미국은 명상수행을 중시하고 있다. 지난 8일 가산불교문화연구원(원장 지관스님)이 조계종 교육원(원장 원산스님)과 공동 주최한 '열린 세계에 있어서 승가공동체의 현황과 전망' 학술회의에서는 11개 불교국의 교학과 수행체계를 비교 분석했다. < >안은 주제 발표자.

스리랑카 뛰어난 교학체계에 비해 전통적으로 전해져오는 수행체계는 미흡한 편이다. 전통적인 사원 교육기관인 빠리웨나(parivena)는 승려 기본훈련과 영어, 산스크리트어 등 각종 어학과 역사, 지리 등 기초교육과 불교학, 논문 등 고등교육 등의 엄격한 교육과정을 통해 승려를 배출한다. 이렇게 엄격한 교육체계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소의경전을 가지고 있지 않는 것이 스리랑카 불교의 특징이다. 실질적으로 삼장이 소의경전으로 여겨지고 있다. 반면 수행전통의 맥을 찾기가 쉽지 않다. 최근에 들어 승속 수행풍토가 서



일본 선학연구 비중 높아 태국 국가시험 등 엄격 티벳 사유 강조 교육체계 중국 불학원 중심 운영

서히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일본 (일중·켄리니이대) 국가시험을 받으며 상좌부불교의 전통을 지키는 태국의 승려교육은 체계적이고 엄격하다. 국가시험은 팔리삼양의 이해, 양기력을 위주로 팔리어·법규경·율장 등이 주요 과목. 전문학교와 불교대학에서 수학하면 시험을 볼 수 있다. 미얀마의 교학 역시 상좌부불교 교학의 전당인 전문강원이 주류를 이루며 현대적인 학문을 장려하는 곳도 있다. 이곳을 이수하면 팔리경전시험과 법사시험을

치르는 등 태국과 비슷하다. 자유로운 승속 수행 형태를 지닌 태국과 미얀마는 위빠사나와 출산식념(出入息念)을 수행 방법으로 택하고 있다. (정원·동경대)
중국 문화혁명을 겪은 중국은 불학원(佛學院) 중심의 교학체계가 유지되고 있으나 수행체계는 퇴보했다. 승려는 불학원에서 불교학, 문화사, 교리 등을 4년간 배우지만 동안 거간동안 하루 2시간의 좌선이 수행의 대부분이다. (덕조·대만불학연구소)
대만 대만불교는 정토삼부경을 소의경전으로 하는 정토불교를 모

와 철학적 사유를 강조한 교육체계로 인해, 의학, 약학, 점성술 등을 익힌다. (소남갈집·달리리리법왕사무소)
일본 임제종과 조동종은 선(禪)이 주(主)가 되고 경전은 종(從)이 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임제종은 간화선종을 지니며 임제종대학을 중심으로 원전번역, 데이터 베이스 구축 등 선학(禪學)연구에 높은 비중을 두고 있다. 조동종은 여타 종파와는 달리 두 곳에 본산을 두고 모든 승려가 이 두 본산에서 일정기간 수행을 거치도록 규정해

놓고 있는 등 엄격한 수행방식을 택하고 있다.
(지인·화원대/지관·애가학원대)
유럽 전문승려교육기관 보다는 인문학과 과목을 개설한 대학 중심의 선적(禪積)연구가 활발한 교학체계. 교육내용은 심리학, 철학, 비교종교학 등이 주류를 이룬다. 이외에도 원전장경들을 중심으로 율장과 논장을 연구한다. 명상 수행이 대중적인 추세를 이룬다. (현문·프라이부르크대)

미국 상좌부, 대승, 금강승계의 불교가 존재해 있어 교학체계를 단정하기 어렵다. 수행체계 또한 백인계 불교인은 명상수행을 따르고 아시아계 불교인은 전통방법을 택하고 있다. (진월·버클리대)
한국 조계종의 교육체계와 수행체계로 설명된다. 조계종은 기초 교육기관과 재교육기관으로 교육체계를 나누고 행자교육원, 승가대학, 학원, 승가대학원, 율원, 선학연구소, 중앙연수원, 특수학교 등을 개설해 놓고있다. 교육내용은 초발심사경문, 사십, 원각경 등과 화엄경, 염송, 전등록 등의 선적이 주를 이룬다. 선적교육에 걸맞게 수행체계 역시 내면의 성찰을 강조한 선수행으로 집약된다. (중호·동국대)
오종욱 기자

法數로 배우는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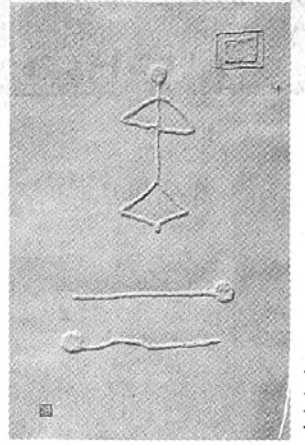
<8>

이변과 중도

사람들이 물건을 달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울에는 무게의 양을 나타내는 눈금과 함께 표시바늘이 달려 있다. 저울이 제노릇을 하려면 표시바늘의 역할이 정확해야 한다.

정상적인 저울은 늘 0으로부터 출발하여 0으로 되돌아와야만이 제 구실을 다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저울의 표시 눈금을 우리는 불교수행에 적용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우리의 마음은 늘 경계에 따라 움직인다. 무게에 따라 움직이는 저울의 바늘처럼 보고 듣는 경계에 따라 항상 동요하는 것이 평소 우리들의 마음인 것이다. 다만 이렇게 움직이는 우리의 마음이 저울의



△참상(眞相)의

치우침 없는 마음자리 '중도'

"저울바늘 '0'의 자리 놓치지 않듯
生死·有無 등 이변적 견해 버려야"

바늘과 다른 점이 있다면 저울의 움직임은 어떤 경우라도 0의 근본을 놓치지 않는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우리 마음의 움직임은 늘 저울의 0과 같은 근본을 등진 상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0과 같은 근본이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아닌 중도(中道)를 가리킨다. 중도란 일체의 치우침 없고 속박됨이 없는 부처의 마음자리를 말하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누구에게나 고루 갖추어져 있는 불성이나 반야와 같은 어떻게 기울어진 마음은 우리에게 세상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지혜를 가리는 무지(無知)를 낳게 한다. 마치 0으로부터 출발되지 못한 저울의 표시바늘이

엔 있음과 없음, 삶과 죽음, 영원과 종말, 나와 너, 옳고 그름 등의 모든 상대적 가치인 이변(二邊)을 진실로만 여기고 그것들이 본래부터 실재하지 않는 공(空)한 것임을 모른다. 이변은 유 아니면 무, 생 아니면 사, 자 아니면 타 식의 상대적 분별의식으로서 모든 속박과 한계로부터 벗어나 홀로 우뚝한 중도실상과는 합할래야 합할 수가 없다. 우리가 부처님의 진실, 깨달음의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이변의 치우침 견해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여기서 그렇다고 세상의 가치와 견해들을 모두 인정하지 말거나 일으키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 중도는 자신이 일으킨 일체의 가치와 견해를 때에 맞춰 쓰면서 그 본질을 깨달아 결박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저울의 바늘이 물건의 양에 따라 움직이더라도 0의 근본을 놓치지 않듯 중도의 삶은 이변을 인연이라 일으키되 그 이변에 묶이지 않고 머물지 않는 것이다. 불자는 항상 저울의 바늘을 점검하듯 자신이 지닌 마음의 움직임을 주시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재 열 <유마선원장>

日나라현서 백제대사터 발견

금강기단·기와등 발굴... 아스카시대 최초 국립사찰 추정

백제인들에 의해 일본 역사상 최초의 국립사찰로 창건된 것으로 알려진 '백제대사(百濟大寺·구다라 노오데라)' 유적이 일본 나라(奈良)현에서 발견됐다. 나라 국립문화재연구소는 2월27일 나라현 사쿠라이(성지) 기비(吉備) 연못터 부근에서 일본국가불교의 개관을 알리는 아스카(阿蘇)시대 최대사찰인 백제대사에서 거대한 금강기단과 기와 등이 발굴됐다고 발표했다.

이(舒)왕 11년(639)에 백제대궁(百濟大宮)과 함께 왕명에 따라 세워진 최초의 사찰로 그 안에는 9층탑과 금당이 있었다고 한다. 이 사찰은 이후 옮겨져 '고시대사(高市大寺)', '대관대사(大官大寺)' 등으로 개칭되어 불려졌다. 백제인들에 의해 창건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대사는 백제에 의한 일본의 불교전파와 그 영향을 알 수 있는 귀중한 열쇠였으나 그동안 그 위치가 밝혀지지 않아 많은 논란이 있었다. 이번에 발견된 금강기단은 동서 약 36m, 남북 약 27m, 높이 약 2m로 발

굴조사항은 '당시 호쿠사찰인 법흥사(일명 飛鳥寺) 금강기단의 약 2.5배인 크거나 주변에서 출토된 기와의 크기로 보아 연대가 (일본서기의) 그것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백제대사의 유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라고 추정했다. 또한 금당터 왼쪽에 9층탑의 터로 추정되는 토단도 발견됐는데, 그 규모로 볼 때 신라의 황룡사지터와 거의 비슷한 크기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흥운기서(한일역사문화학회 회장)는 '아스카시대 최대사찰인 백제대사의 흔적을 발견한 것은 한일교대불교사 연



구에 있어 획기적인 성과'라고 전제하고 '백제대사는 백제대궁과 함께 백제 계승의 의미를 담아낸 것으로 백제불교가 일본고대국가형성에 커다란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주는 귀중한 발견'이라고 평가했다.
윤기서 기자

'움직이는 박물관' 전시회 11월까지 17개 지역 순회

백제금동상류를 비롯 다수의 성보문화재가 문화소외지역과 지방학교를 찾아 나섰다. 국립중앙박물관(관장 정양모)이 운영하고 있는 '움직이는 박물관'은 백제금동상류, 신라토우, 만화로 보는 박물관 등의 주제로 3월12일 장호원초등학교(경기)와 현대전자산업(경기)에서 전시회를

가졌다. 국립중앙박물관은 오는 11월까지 총17개 지역 순회 전시회를 연다.

성철선사상심학술비 지원
성철선사상심연구원(원장 목정배)이 올해 불교관련 학술연구를 지원한다. 지원분야는 선불교와 일반불교를 비롯해 불교학과 관련한 모든 연구 분야를 망라한다. 대상은 전임교수, 소장학자, 지방승가대의 강주·중강 등이며 원전등록회(5명 이상)의 활동도 지원한다. (02)265-5216

삼화불교대학 신입생 추가 모집

1. 모집학과 및 안내

학과	수업연한	모집인원	지원자격 및 제출서류	특별전형 30%
불교학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고등학교 및 동등 이상 학력자 최종 학교 졸업증명서 1통 본교 소정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면합판 사진 5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조계종 승려 포교사(타종 승려 포함)
유아교육과(유아 포교과)	4년	•주간 0명		
중국어과	2년	•주간 0명 •야간 0명		
불교미술과	2년	•주간 0명		
신문방송과(불교포교과)	2년	•주간 0명 •통신 0명		

2. 학교연혁

1989. 7. 3 학교설립공고
90. 3 불교방송대학 불교학부, 유아교육학부 4년제 개교
90. 4 삼화불교대학으로 개명
90. 8 본교학생 37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증 취득
91. 3 선운부 주간·야간 2년제 개설
91. 8 본교학생 48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1. 8 교육부 인정 고등학교 인준
92. 2 제1회 졸업생 배출
92. 7 국가인정 유아교사 2급 119명 자격 취득
92. 7 제2회 졸업생 배출
93. 3 불교미술과·불교방송(신문방송)과 개설
93. 8 본교학생 42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
94.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32명 취득
94. 2 제3회 졸업생 배출
95.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9명 취득
95. 2 제4회 졸업생 배출
95. 3 선운부 중국어과 개설
95. 8 중국남경중의약대학 문교계열
95. 11 본교학생 41명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6. 2 국가인정 2급 보육교사자격 40명 취득
96. 2 제5회 졸업생 배출
96. 11 본교학생 40명 조계종 포교사 자격취득
97. 2 국가인정 3급 보육교사자격 20명 취득(예정)교육 수료후
97. 2 제6회 졸업생 배출 예정

3. 특 전

- 성적 우수자 각종 장학금 지급
- 법사 자격증·불교유아포교사 2급 자격증 수여
- 조계종 포교사 자격 취득(자격고시를 거쳐)
- 동국대학교 대학원 과정 입학 가능

4. 전형 방법

- 전형방법: 서류전형, 면접

5. 원서교부 접수 및 문의처

본교: 511-2026-8
조계사찰 삼보원: 732-9904
* 기타 상세한 사항은 교학부로 문의 바람
(☎ 511-2026-8, 511-1080)

135-120 서울시 강남구 신사동 511-5, 팩스:511-1080
삼화불교대학

한국역학대학 97년 신입생모집

1. 목적: 국내 최초 공신력 있는 역학 교육기관으로써 심오한 동양철학(역학)을 누구나 쉽고 빠르게 교육시키며 올바른 역학인(카운셀러)을 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교육기간 및 과목
교육기간: 6개월
교육과목

오행역학	명리학	성명학	상당학
------	-----	-----	-----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제출서류	접수기간	전형방법	입학금 및 수강료
정규반50명 통신반50명	입학원서1통 주민등록등본1통 반면합판사진5매	97년2월17일 ~ 3월 29일	남·녀 누구나 선착순 접수	입학금 30만원 수강료 월10만원 (교재 및 강의 테이프 포함)

4. 특 전

- 본대학 졸업장 및 역리사 자격증 부여
- 자유직업을 원하시는 분 공인 역리사 활동 취업보장
- 졸업후 희망자에 한하여 일본 역도대학 유학알선
- 지속적 교류 및 역학정보 제공

한국역학대학 대표전화
서울 송파구 송파동 15-3 해광 B/D4층 (02)423-6446